

청림 보신탕

김 관주

혹시 뱀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은 뱀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사람과 도망가지 않고 뱀에 관심을 보이거나 뱀을 잡는 사람. 저는 당연히 전자에 속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무섭습니다. 남자가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섭습니다. 뱀을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갑자기 뱀 얘기냐고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 막 입사를 하고 나서 생긴 뱀과 얽힌 사연 때문입니다.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는 집안일을 도우러 잠시 고향인 보길도에 내려왔다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라는 곳에서 '자연환경안내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보길도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만큼 국립공원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집 공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지원서를 넣은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첫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은 현재까지 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을 보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가 처음 지원했던 "자연환경안내원"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생태해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비정규직 신분이었지만 생태해설을 하면서 몰랐던 자연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뱀과 마주쳤던 그날도 저는 탐방객에게 소개할 생태해설 자료 등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보길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도로 위에 검은 줄 혹은 띠로 보이는 것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점점 다가가보니 웬걸? 줄이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2미터 정도 되는 건강한 암컷 먹구렁이 한 마리가 밤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도로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렁이 담 넘어 가네”라는 속담과 비유가 있을 정도로 구렁이를 쉽게 보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의 구렁이는 보신이니 뭐니 해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현재 멸종위기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귀한 녀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뱀이 무섭고 겁이 났지만 도로에 올라와 있는 녀석이 혹시나 차에 치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른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터라 뱀을 옮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마침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막대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웁지, 저 막대기로 뱀을 몰아서 이동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뱀을 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주야, 그놈 도망 못 가게 잡고 있어라”

목소리는 이웃에 사시는 제 오촌 당숙이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예, 당숙”

하고 대답한 후, 구렁이를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린 채 오히려 막대기를 이용해 구렁이의 퇴로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당숙을 살짝 보는데 환갑이 넘으신 분이 눈썹을 휘날리며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도 고르시지 않고 당숙께선 구렁이를 맨손으로 덩석 잡더니

“아따 고놈 실하네! 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손에 쥔 구렁이의 상태를 눈으로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구렁이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하신 듯 당숙은 얼굴에 한 가득 미소를 지으며,

“관주야, 고생했다. 바쁠텐디 얼른 일 보거라이!”

라고 한 말씀하시고는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 큰일 났다!’ 그제야 일이 꼬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숙께서 저 구렁이를 보신에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구렁이를 보호해야할 제가 오히려 귀한 구렁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몬 것이었습니다. 그 때 당숙은 3년 전 암 선고를 받고 2년 전에 수술을 하셔서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황이었으며, 회복을 위해 몸에 좋다는 보신재료와 한약 등을 많이 구하신다는 말을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오늘, 보신 재료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한다는 튼실한 구렁이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고 부모님과도 친분이 두터우시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웃사촌인 당숙인지라, 거기다 최근의 건강악화에 대한 연민까지 느껴져 그 구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므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팡질팡 고민하는 사이 어느 덧 당숙은 집을 향해 사뿐사뿐 걷고 있었습니다. '어찌지? 놔 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만 '놔 주세요! 제발 놔주세요!'를 반복하며 당숙을 졸졸 쫓아갔습니다. 당숙의 집 앞에 도착해서 막 대문을 들어가시려는 찰나, '저 문을 넘는 순간 구렁이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당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숙..."

"그래? 우째 뭘 불일이 있어서 안가고 거기 있다냐? 오늘 요놈 꼭 고아서 너희 아버지 불러다가 한 그릇씩 할러는디."

역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까지 부르신다니...이러다간 동네에 내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잡아다 당숙과 아버지 몸보신 시켜드렸다고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럼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얼굴도 못 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당숙. 사실은 그 구렁이를 다시 놓아줘야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당숙은 약간 불쾌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니 힘들게 잡은 놈을 뭐한디 보내줘야?"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렁이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에 치여 죽을까봐 밖으로 몰고 있었다, 또 먹구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희귀한 녀석이라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런 저런 설명을 해 가면서 구렁이 구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당숙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언짢으신 듯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느그 당숙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놈 가지고 몸보신 좀 한
다는 데 그게 그렇게 못 마땅해서 여그까지 쫓아와서 놔 주라, 마라 하나?
관주 너 착실하고 예쁘게 봐 왔는디 못 쓰겼구만!”

하시고는 대문을 ‘꽁’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는 대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조심 있다 다시
대문이 열리더니 당숙께서 나오셨습니다.

뱀을 잡고 있었던 당숙의 손에는 뱀 대신 만 원짜리 몇 장이 쥐어져 있었
습니다. 당숙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성질부려서 미안했다. 그리고 니가 고생해서 같이 잡아줬는디 내
가 그냥 받을 순 없제. 이거 얼마 안되는 디 뱀 값이다 생각하고 받아둬라.”
하시며 저에게 오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당숙의 힘없는 모습과 애원
섞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뱀을 놓아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안 받고
그냥 가겠노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숙은 기어코 제 주머니에 오만 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만 원을 당숙에게 받고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
다.

하지만 차로 돌아오는 동안 오만 원이 담긴 주머니는 마치 갓돌을 담고
있는 듯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이 보호해야할 멸종
위기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판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마
치 웅담, 상아, 모피 등을 구하기 위해 멸종위기생물을 마구 잡아 죽이는
저녁 뉴스의 단골손님인 밀렵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있는 봉투에 돈을 담고 다시 차에서 내려 당숙을 찾아갔습니
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있었고 당숙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봉투에 메모를 남겨 놓고 차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설 소
재를 더 알아봐야 했지만 전혀 흥이 나질 않아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간 것
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 당
숙의 집이 보이자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
니다.

집 마당을 들어가는데 마당에서 아버지와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숙이었습니다. 당숙은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시곤 바로 아무 말 없이 대문 밖을 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진 저는 아버지께 당숙이 왜 오셨으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당숙과의 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니가 느그 당숙한테 살려주라고 사정했던 그 구렁이가 도망가버렸단다. 그물에 담아서 대야로 덮어놔는데 힘이 워낙 좋은 녀석이라 그물을 풀고 도망가버렸다냐."

구렁이가 살아서 도망갔다는 소식에 저는

"아, 그랬어요?"

하고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를 외치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느그 당숙이 오늘 그 구렁이 잡아다가 폭 고아서 나랑 먹자고 하려고 맘 먹고 있었는데 국립공원 다니는 조카 놈이 그러면 안된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더라. 그래서 니 퇴근하믄 다시 너한테 뱀 돌려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살려고 도망쳐 버린거제. 허허"

아버지는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숙이 결정적으로 구렁이를 살려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가 돌려준 봉투의 메모를 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돈이 든 그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숙 어린 조카가 맘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찮은 뱀일지라도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그 뱀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서 주신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카 올림- 」

그날 이후, 당숙께서는 저의 국립공원 직장 생활을 더욱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 문제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가끔 명절에 고향에 오시면 꼭 저희 집을 들리시고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그날 일을 말씀하시며

“아따, 그때 니가 그 뱀을 못 잡아먹게 해서 내가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 이놈아~~.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것인디 그때 같이 정직하고 소신 있게 하면 된다. 알것제?”

혈연, 학연, 지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저는 언제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때 그 구렁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제게 있어 그날 본 구렁이는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청렴 보약이었습니다.